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국어 작년보다 어려웠고, 수학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다

국어 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요구
EBS 수능교재 체감 연계도 높아

수학 사고력 요하는 문항 위주 출제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제 추가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영역 문항 자체 난도가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려웠고, 수학은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킬러)문항'으로 부를만한 문제도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 **국어, 작년 수능·9월 모평보다 어려워**
1교시 국어영역은 작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형상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선지를 세심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높이며 수험생이 어렵게 느끼도록 출제됐다는 게 입시업계와 현장 교사들의 평가다.

올해 수능 출제기조 분석에 나선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 국어영역은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 높게 출제된 가운데,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149점이던 전년도 수능보다 15점 낮아지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EBS 현장 교사단은 이보다 이번 수능이 더 어려웠다고 분석한 것이다.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됐다고 파악했다. 교사단은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의 경우 킬러문항이 배제됐으며, EBS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수능교재를 밀도 있게 연계하고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출제 경향이 유지돼 수험생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교사단 설명이다. 교사단은 "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됐고, 특히 독서 지문 4개 모두 EBS 수능 교재에서 연계돼 체감 연계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입시업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 지난해 수능보다도 어렵게 출제됐다"라며 "수험생들이 언어와 매체 중 문법이 9월 모의평가보다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변별력도 높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난해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불균형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국어 난도가 다소 높아져 변별력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메가스터디도 "선지에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 수험생은 지난해 수능이나 9월 모평보다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국어의 EBS 연계율은 51.1%, 총 23문항이다.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독서에서 10번·15번, 문학 27번,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40번·43번·45번, '언어와 매체' 39번 등이 꼽혔다.

◆ **수학, 9월 모평 기조 유지...다양한 난이도 골고루 출제**

수학영역은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사고력 필요한 문항을 위주로 출제하고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문항은 지양했다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측 설명이다.

EBS 현장 교사단은 "수학영역은 올

해 치러진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구성면에서 매우 흡사하며 최상위권부터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충분히 변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9월 모의평가에서 만점자가 6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보다 크게 늘어 최상위권 변별력이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2520명으로 934명이던 작년 수능보다 약 2.7배 많았기 때문이다.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도 4배 많다.

교사단은 "최상위권(체감 난이도)은 9월 모의평가와 지난해 수능 사이 정도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했다. 이어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거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라며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돼 수학 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는 과목별로 수학 I 15번, 수학 II 22번,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항을 꼽았다.

입시업계는 수학영역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제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임성호 대표는 "선택과목 중 미적분, 기하 9월 모의평가 대비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라며 "9월 모의평가 수학 만점자가 2520명 발생해 수능에선 최상위권 변별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병진 소장도 "전체적으로는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9월 모의평가 흐름을 이어가려는 출제였다"라며 "만점자 수 관리를 위해 미적분의 난이도를 작년 수준으로 조절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이상동기 범죄 대응 '다다다 행동요령' 배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
자치구·경찰서·누리집 통해 배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잇따른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사진)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동요령은 ▲1단계: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2단계: 달아나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기 ▲3단계: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기 등 총 세 단계로 구성됐다.

시는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행동요령'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가구(의자·탁자), 소지품(가방·책)을 활용한 방어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물로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소책자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자경위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hjk1@

서울시, 지방정부연합 아태지역 이사회 연임

140개국 24만여개 지방정부 회원

서울시는 15일 중국 이우시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제9차 총회에서 차기 이사회 연임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UCLG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엔(UN)'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연합체로, 140개국 24만여개 지방정부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ASPAC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자체의 상호 협력

과 공동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을 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비정부 연합체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사회 활동을 시작해 올해 총회를 통해 9번째 연임됐다. 임기는 연임 즉시 시작되며, 3년간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서울과 함께 상하이, 타이베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56개 지자체 대표가 이사회로 선출됐다.

/김현정 기자

고려대, 하버드대-스탠퍼드대와 콘퍼런스 개최

'건강 위험·지속가능성 문제' 주제

고려대학교는 하버드대(Harvard), 스탠퍼드대(Stanford)와 17일 오후 1시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건강 위험과 지속가능성 문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콘퍼런

스는 수부 수브라마니안(S(Subu)V Subramanian) 하버드대 교수, 미셸 배리(Michele Barry) 스탠퍼드대 교수, 카렌 잉글스턴(Karen Eggleston) 스탠퍼드대 교수와 고려대 4단계 BK21 러닝헬스시스템 융합교육연구단, 정정보건과학 융합교육연구단, 환경생태공학교육연구단 교수가 참석해 콘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용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장 및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는 "인류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바이오 헬스, 보건 의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새로운 60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세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응원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5개 자치구와 합동 점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과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법외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